

내 안의 미적 본능을 깨우는 방법

심미안 수업

윤광준 지음

독일 드레스덴에서 차를 운전하던 그는 갑자기 눈앞에 검은 장막이 드리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를 후 급히 귀국한 그에게 의사는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내리고 설명할 위험이 높다는 말을 건넸다. 첫 수술 후 다행히 실명은 되지 않았지만 물체가 비뚤어지고 변형돼 보이거나 작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눈에 이상이 오면서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던 예술을 즐기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술 애호가로서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베스트셀러 ‘잘 찍은 사진 한장’, ‘윤광준의 생활명품’의 저자 윤광준의 이야기다. 두번째 수술 덕에 다시 시력을 회복한 그는 자신이 강의에서 줄곧 말했던 ‘예술을 경험하는 법’에 대한 책을 쓰기로 한다. 신간 ‘심미안 수업-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가’. 심미안(審美眼)은 보통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능력’으로 해석된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예술의 세계가 멋지다는 건 알지만, 그 세계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나 또한 그런 사람 중의 한명이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에는 순서도 서열도 없다. 잘 팔라도 즐겁고, 처음 접해도 환율한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인간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 본능을 깨우고 숨겨진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길 바란다”고 말한다.

사진작가, 오디오평론가, 작가로 이름이 높은 그는 국악, 미술, 클래식, 건축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예술 애호가다. 그는 예



술현장에서 느낀 풍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적 본능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건넨다.

책은 모두 6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 1장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를 비롯해 ‘숨은 의도를 발견하는 기쁨, 미술’, ‘지금 이 순간만 사는 행복, 음악’, ‘나를 둘러싼 공간이 확장되는 미술, 건축’,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주목하는 힘, 사진’, ‘일상의 욕망을 다독이는 지혜, 디자인’ 등 5개 장의 부제는 각 장리가 갖고 있는 ‘핵심’을 잘 보여준다.

미술이 어렵다는 사람들에게 그가 권하는 ‘전시회를 즐기는 여섯 가지 방법’은 웬만하면 유료 전시를 보자, 같이 갈 사람을 잘 고르자,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갖고 가자,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자 등 알맞고 쉽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딱히 누가 알려주지는 않는 것들이다. 작가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 아다치 미술관과 한국의 리움미술관 등을 소개하며 자신에게 ‘각별한 미술관’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추천한다.

또 수세기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클래식,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국악 등 다양한 음악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브라운 믹서기·게리트 리트벨트의의 자 등을 통해 디자인과 친숙해지는 방법도 소개한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르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아파트 등 저자가 직접



윤광준의 신작 ‘심미안’은 자코메티의 ‘예술을 경험하는 법’에 대한 책이다. 자코메티의 대표작 ‘걷는 사람’.

찍은 다양한 사진과 브레송의 사진 등 그가 선택한 작품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김정은 문화심리학자는 ‘뛰어 아름다운 건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뻥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삶이 이토록 거친 것’이라며 ‘심미안 수업’의 일독을 권했다.

〈지와인·1만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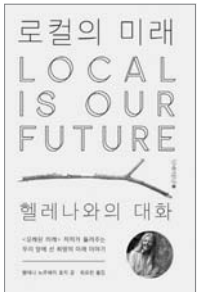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성장 만능은 그만 ... 로컬에서 희망을 찾자

로컬의 미래-헬레나와의 대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최요한 옮김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세계화’는 500년 전에 시작한 정복과 식민주의에 새로운 탈을 씌우고 계속 이어가는 착취에 불과하다. 세계화는 현재 전 세계로 더 깊숙이 침투해서 생태계, 지역과 지방 경제, 국가 경제를 빨아들여 중앙에서 관리하는 단일 글로벌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단일 글로벌 경제의 발판은 영원한 성장과 무시무시한 소비지상주의, 즉 기업 지배다.” 지역화는 지구촌의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성장을 즐기치게 이야기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소비 경제를 지속하려면 몇 개의 지구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릴 것 원한다.

자연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로컬에서 희망을 찾자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40년 동안 전 세계에 행복의 경제학을 전파하고 있는 로컬 경제 운동의 선구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그 주인공. 그녀는 ‘오래된 미래’의 저자이자 영화 ‘행복의 경제학’의 제작자이자 공동감독이기도 하다.

‘이스 저널’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환경운동가 10인’에 선정하기도 했던 헬레나는 이번 책 ‘로컬의 미래-헬레나와의 대화’에서 무한 성장에 중독돼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전한다. 저자가 해법으로 제시한 대안은 로컬, 바로 지역화다.

저자 헬레나가 꿈꾸는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지속 가능한 사회의 경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자는 지역화란 경제를 분권화해 지역 사회와 지방, 국가의 자치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모든 지역 사회가 독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되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동시에 기업이 독점하고 장악하는 글로벌 시장과 로컬 시장의 균형을 잘 잡

자는 뜻이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오랜지나 아보카도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반경 80킬로미터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밀이나 쌀, 우유 같은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 식량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입하지 말자는 것이다.”

헬레나는 글로벌에서 로컬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정책 변화와 아울러 지역에서 발현되고 있는 다양한 상황식 구상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글로벌 경제 거인들에 맞서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사정을 훤히 이해한 뒤, 지역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남해의 봄날·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호킹의 빅뱅스전에 대한 간결한 대답=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유작이다. 이 책에서 스티븐 호킹은 ‘왜 우리는 거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총 10개의 거대한 질문, 즉 ‘빅뱅스전’에 관해서 답하고 있다. ‘호킹 박사’ 이론을 비롯해 상대성이론 등의 물리학 이론들을 압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그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30여 개 국가에서 번역 출판 계약이 됐다.

〈가치·1만7000원〉

▲위험한 책 읽기=책의 지은이인 로버트 P. 왓슬라는 문학의 ‘깊이 읽기’와 ‘얕게 읽기’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활자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가장 완벽한 책 읽기 안내서’를 내건 이 책은 19-20세기의 잘 알려진 작품들로 구성됐다. 책은 작품들이 밝은 여정에서 문학 내러티브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는지 생각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문학사상사·1만4500원〉

▲말레피센트(디즈니의 악당들 4)=디즈니 만화작가이자 소설가인 세레나 발렌티노가 쓴 ‘디즈니의 악당들’ 시리즈 4번째 이야기이다. 책은 오로라 공주의 탄생 연회 때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레타가락에 찔려 잠에 빠지는 저주를 내린 말레피센트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요정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날개



도 없고, 보통 요정들과는 다른 모습에 늘 환영받지 못하는 말레피센트의 알려지지 않은 절반의 이야기를 다루며 그녀가 모든 악의 여왕이 된 연유를 밝혀낸다. 〈리움·1만4000원〉

▲지각지능=이 책에서 말하는 지각지능(Perceptual Intelligence, PI)은 ‘환상과 실재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때로는 조작하는 방식’이다. 책은 과학적 논리와 재미있고 분명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왜 우리의 감각이 항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지, 또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지각지능 향상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소소의책·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누구일까? 식물친구 1: 과일과 채소=주변 사물에 관심이 생기고 탐색하기 시작하는 어린이를 위한 식물도감이다.

식물 친구 과일과 채소의 생태를 퀴즈와 동시로 흥미롭게 풀어내 쉽고 재미있게 식물을 접하고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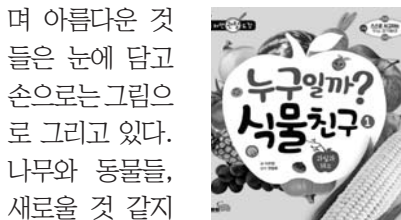
생생한 사진과 여러 형태의 놀이 구성은 처음 시작하는 자연 관찰이 즐겁고 지속 가능한 탐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름아·1만3800원〉

▲아무 데도 없어=날마다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토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아침을 먹다 말고 방을 나가 무언가를 찾던 할아버지는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며 ‘없어’라고 고환한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선반 위의 옷을 들추며 ‘여기 없어’, ‘여기도 없어’를 외치는 토박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찾는 걸까?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나무는 매일매일 자라요=지은이 델핀 그러니에는 자연과 동물을 관찰하



며 아름다운 것들은 눈에 담고 손으로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나무와 동물들, 새로운 것 같지 않지만 늘 새로운 이 조합이 아름다운 이 그림책에서 고양이는 나무를 아무만지고, 다람쥐는 썩터를 만들고 새들은 나무에 동자를 튼다. 나무 또한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하고 성장해 간다. 〈고래가숨쉬는도서관·1만2000원〉

홍윤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위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